

‘-거-’ 統合形語尾의 形成 研究

—‘-거든’, ‘-거늘’, ‘-거니를’ 中心으로—

南 美 貞

(西江大學校 講師)

1. 序 論

現代國語에서 확인되듯 ‘-거-’ 統合形 接續語尾에는 ‘-거든’, ‘-거늘’, ‘-거니’, ‘-거니와’, ‘-거니와’, ‘-선’ 등이 있다.¹⁾ 이들 접속어미들이 형성된 지기를 정밀하게 구분한다면 약간씩 차이를 보일겠지만 대부분은 先語末語尾 ‘-거-’의 기능이 약화되어 先語末語尾로서의 獨立的인 機能을 喪失하고 중서국어와 근대국어의 교체기에 이들 접속어미의 형성이 완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는 先語末語尾 ‘-거-’가 통합되어 형성된 이러한 일군의 接續語尾들 중 우선 ‘-거든’, ‘-거늘’, ‘-거니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形成過程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²⁾ 즉 선어만

-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統合形語尾’라는 용어는 徐泰龍(1988)을 따른 것이다. 徐泰龍(1988:11)에서는 국어의 ‘語尾接續형’을 ‘單一接續’과 ‘統合語尾’로 구분하고, ‘統合語尾’를 다시 ‘語尾微縮型’과 ‘統合形語尾’로 구분했는데, 여기서 ‘어미 축소형’은 “형태분석의 방법으로 그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복합어미”를 일컫고 ‘통합형어미’는 “새 축소화된 형태로, 저분자의 방법으로 그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복합어미”를 일컫는다. 즉 현대국어 문장에서 ‘-거-’ 통합형어미는 문지적인 형태 분석의 방법에 의해서 분석될 수 없는 새 축소화된 형태이다.
- 2) 이 글에서 ‘기’ 통합형 접속어미들 중 ‘-거든’, ‘-거니’, ‘-거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 글은 현대국어의 존재하는 ‘기’ 통합형어미 전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들 접속어미로 형성된 기능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이 세 접속어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며 '-거-'가 통합되기 이전 시기에 이들 接續語尾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지에 대해 釋讀口訣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중세국어 시기 전반에 걸
 쳐 이들 接續語尾가 형성되는 過渡期的 모습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 統合形語尾에 대해서는 既存의 論議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
 다.³⁾ 특히 '-거-'에 대해서는 그것의 형성 과정을 비롯하여 中世國語에서의 쓰
 임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된 상태라 할 수 있다.⁴⁾ '-거-'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
 는 데 있어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거-'가 '-집-'에서 '-로-' 脱落하여
 形成된 것인지, 아니면 '-로-'에서 '-로-'가 脱落한 후 '-거-'가 結合하여 形成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論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거-'의 형성에 대해서는 李勇(1997)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
 고, '-거-'가 動名詞語尾 '-로-'와 대격조사 '-의'의 결합으로 형성된 '-로의'와
 先語末語尾 '-거-'의 결합이라든가 이에 관련된 일차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거-'
 네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나 다만 '-네'의 형성에
 대해 黃善燁(1995)과 南豊鉉(1996) 등에서 진략히 언급된 바 있다. '-네'가 어
 떠한 要素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어떠한 過程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려는 일은 '-거-'의 형성을 추궁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거-'의 형성과 관련하여 '-네'의 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거-' 統合形語尾의 形成

1. '-거-'

接續語尾 '-거-'의 형성은 크게 두 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로' 名詞句 補文 構成을 이루는 依存名詞 '-로'와 主題의 補助語 '-의'의 결합이 성

- 3) 기존 논의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점은 '-거-' 동합형이라기보다는 '-거-'가 동합
 되기 이전의 접속어미에 대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잡이네', '-네', '-니'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 있지만 '-거-' 동합형어미 정반에 대해 따문 논
 의는 그리 많지 않다. 徐本龍(1988)에서 현대국어의 접속어미를 다루는 가운데
 재분석의 광역을 통해 '-거-' 동합형어미를 전반적으로 고찰한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닐까 한다.
- 4) '-거-'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朴善鍾(1996), 李勇(1998)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중세국어의 '-거-'의 기능에 대해서는 崔允熙(1991)를 참조할 수 있다.
 '-거-'의 형성 과정 및 동시적 변화를 다룬 논의로는 崔善鍾(1998)이 있다.

속어의 ‘-느’으로 변화하고, 단계이고, 2단계는 심층어의 ‘-느’와 ‘-거-’의 결합으로 ‘-거느’이 形成되는 단계이다. 여기서도 2단계의 형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接續語尾 ‘-거느’의 형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하나는 ‘-느’에서 ‘-느’가脱落하여 ‘-거느’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느’에서 ‘-느’가 탈락하여 ‘-느’가 형성된 후 전어방음이 ‘-거-’가 결합해 ‘-거느’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前者의 입장은 ‘-느’에서 하나의 심층어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거-’와 결합하고, 여기서 다시 ‘-느’가 탈락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朴濤鐘(1996:261)에서 제시된 것으로 朝鮮利興의 吏讀 資料에 나타난 ‘-고乙等(것느)’의 존재나 吏文人帥에서 ‘爲去等, 爲白去等’을 ‘爲去’로 읽는, 合音字로 읽은 것에 주목한 것이다. 後者の 견해를 李勇(1998), 樞樞(1998)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는 鄉歌나 釋讀口訣 資料에서 종종 발견되는 ‘-느’의 형태와 音讀口訣 資料에서 발견되는 ‘-느’ 단어의 표기, 또 고려 후기의 吏讀 資料와 音讀口訣 資料에서 ‘-거’와 ‘-느’가 결합한 ‘-거느’가 많이 쓰인다는 점에 根據한 것이다.⁶⁾

이 말에서 樞樞(1998)에서와 같이 後者の 견해를 주하며, 여기서도 고대국어 및 중세국어에서 ‘-거느’의 형성 과정을 보여 줌에 몇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⁷⁾

- 1) ‘-느’의 起點的인 構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하나는 ‘-느’를 依存名詞 ‘-느’와 ‘-느’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起點時制 ‘-느’와 ‘-느’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前者는 金文鼎(1979)과 鄭道환(1980), 朴濤鐘(1996) 등에서 제시된 것이고 後者는 具顯龍(1989)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데, 후자의 입장에서는 主格名詞尾와 ‘-느’의 결합이라는 假說적인 결합을 상상해야 하고 또 중세국어에서는 ‘-기’뿐만 아니라 ‘-다’의 존재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설명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具顯龍(1989)의 논제대로라면 ‘-다’는 ‘-느’와 ‘-다’의 결합으로 ‘-다’가 두 번 결합한 것이 된다.
- 2) 李勇(1998)과 樞樞(1998)는 ‘-거느’가 형성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나 ‘-고’와 ‘-느’의 起點時制에 있어서의 관계, 중세국어 ‘-기’의 起點時制에 있어서의 可能性 및 ‘-기’의 형성이 완결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 3) 후자의 견해를 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느’의 존재이다. 즉 ‘爲白等 合音字’ <吏文人帥 90>이나 <義疏後法> 卷 1 7(義疏後法 93)의 <平林本末 樞樞經 3:48>에서 ‘-느’가 들어있어서 ‘-느’에서 ‘-느’와 결합한 모습의 확인되는데, 만약 ‘-느’에서 ‘-느’가 탈락하여 ‘-느’가 되었다고 보면 이와 같이 ‘-느’의 형태로 接續語尾의 機能을 遂行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느’의 존재는 具顯龍(1995)에 의하면 高麗宗代의 吏讀文이나 17세기 이후의 吏讀文에서는 발견

- (1) 佛子 若ヒ諸ノ菩薩ノ善々 其心ハ 用ヒテ入ル (用會入會) 則々 一切勝妙功德ハ獲ヒテモ (華嚴 2:12) 【보살이 바인 모든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승하고 지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 (2) 一 其錄于后爲訣云 中是案 今後乙良 上后長姓名 及 西祖輩印年月 并以 施行傳於后生幸極 (慶州司首戶長行案(其 3:22) 【뒷날 장후이 기록한 일이면 시를 부디: 上后長 姓名 및 四能의 案도 장과 印월을 아온다 후정에게 지행하이 진하게 案되니 案이다】
- 一 既微謝已 ソコ重請後法ソコモ (후지문) 兼希斯感障 (후지문) 成就果願也 ソコ (祈林寺本 楊殿經 3:48) 【이미 謙謝하시니 또 후의 法을 請하시면(후지문) 感障을 다 고치 果願을 이루기를 바라니라】
- (3) 一 直子 無在如亦中 大外甥姪女婿中 一名乙 東班是夫案 九品 西班是夫案 校尉爲等如差傳爲良於爲教矣 (尙書 : 55-57) 【직자 없으면 내외 조가 사위 중 한 명을 불같이 지는 九品, 무같이 지는 校尉 동물이 자비하게 하라】
- 一 若復無此 種別明入(구지문) 則不能見 (후지문) (祈林寺本 楊殿經 2:30)
- 一 후다가 또 이 세가지 光明이 입스면 能히 보미 동화한니이다 (楊殿經 2:71) >

(1)은 12세기 중·後半의 釋讀口訣 資料에서 ‘노근’이 ‘집속’이므로 쓰인 예이다. 釋讀口訣 資料에서 이와 같은 條件文에 ‘노근’이 쓰인 예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시기의 條件文의 형식을 보여준다. 예라 할 수 있다. (2)는 각각 14세기 (1361년)와 15세기 초반(1401년)의 吏讀 資料와 音讀口訣 資料에서 ‘노근’이 단독으로 ‘집속’이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8) ‘노근’ 단독으로 ‘집속’이미로 쓰인 예는 흔하지는 않지만 ‘노근’의 형식 과장을 추정할 수 있다. 端緒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3)은 ‘노근’이 ‘노거’와 결합하여 條件의 接續語尾로 機能하는 예이다. (3-1)은 13세기 말(1262년)의 자료로 ‘노거’ 결합형을 보여주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예라 할 수 있다. (3-2)은 (2-1)과 비교하여 동일한 문헌에서 ‘노거’와 ‘노근’이 동시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때의 ‘노거’는 (2-1)의 ‘후지’가 ‘선’이미이며 ‘노지’와 ‘집속’이 ‘노근’의 단순한 결합인 것과 마

할 수 없는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이유인데, 초기의 ‘노근’이 ‘선’이미이며 ‘노거’와 결합한 형태를 반영하는 자료가 다분히 하다. 즉 초기의 ‘노근’은 ‘노근’, ‘결속’, ‘결합’에서 지칭하는 ‘노’, ‘거’, ‘결’ 등 다양한 ‘선’이미와 비교 동형 가능했는데 ‘집속’이 이와 동형한 지면에 속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8) 여기에 제시된 이 두 자료는 李承完(1992)를 참조한 것이다.

전가지로 선이만이며 '-거-'와 '-든-'의 단순 결합형이라 할 수 있다. 즉 '-거든' 형이 文獻 資料에 등장하는 시기는 대략 13세기 말, 14세기 초 정도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거든'은 하나의 統合形語尾가 아니라 '-거-'와 '-든-'의 單純結合形 내지 結尾構造體라 할 수 있다.

‘거논의 길잡이’完成後로 지거논 중세국어에 의지한다. 중세국어의 ‘거논’을 統合形態語로 보느냐 語尾構造體로 보느냐, 즉 중세국어의 ‘거논’이 共時的인 形態分析의 方法을 통해 분석 가능한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다. ‘거논’의 형식이 完結後로 지거논 언제인지를 밝히려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몇몇 다른 전제가 있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사실을 들어 중세국어의 ‘거논’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본다. 이의 근거 根據는 ‘호거지논’과 ‘호지거논’의 混在이다.

- (4) ① 龍歌에 龍歌心의 龍心은 이 때를 나타 내는 노래 (龍歌 117장)
 ② 龍歌에 . . . 衆爲의 龍法은 龍法이다 (法華 4:18)
 ③ 龍歌의 龍歌心은 龍心을 나타 내는 노래 (龍歌 117장)

(4)과 (5)에서 '거지'와 '지'가 공존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4)와 같은 예인데, '거'에 '지'가 통합될 때는 '지'와 '거'가 함께 나타나지만 '거'에 '지'와 '습'이 동시에 통합될 때는 (4)와 같이 항상 '습지'가 나오게 된다. 만약, '거'에 '지'가 통합될 때 '지'와 '습'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에 '지'와 '습'이 동시에 통합될 때는 '지'와 '습'이 함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4)와 같은 예는 '거'에 '지'와 '습'이 동시에 통합될 때 '지'와 '습'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거'에 '지'와 '습'이 동시에 통합될 때 '지'와 '습'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거'에 '지'와 '습'이 동시에 통합될 때 '지'와 '습'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illegible]

- (3) 이 “그릇 내리기를 소망하 오니”라는 표현과 또 “그릇을 더오르리라”
 《杜謔 15:31》
 “... 오니가 마니 相을 더오르”는 또 能히 相오르 對答할 수 있리라
 《金瓶 3家 3:12》

(5-7)은 ‘-는’이 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한 예이고, (5-8)은 ‘-더-’와 ‘-지-’가 함께 결합할 때 형태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을 부분의 것이다. ‘-지시’문과 ‘-지거

9) 종자-리더로서 기능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보는 견해로는 최영환(1981), 김희(1975), 고영환(1978)을 들 수 있다. 한편, 리더의 형태 분석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로는 홍永根(1987), 박수환(1991), 정영(1998) 등을 들 수 있다.

문이 존재하고 현상국어가 될까? 『거저』의 어근 文證되지 않는다. 즉 중세국어에서 『거저』는 『나』는 각각 『거-+』, 『나-』로 분석될 수 있는 형태이다.

『거저』의 分析 可能성을 주장하는 세 번째 근거는 『오나』 > 『오거』, 『하이』 > 『하거』의 變化이다. 중세국어에서 선어말어미 『거-』는 동사 『오-』와 결합할 때 항상 『나-』로 交替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거저』와 동사 『오-』의 결합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 (6) 『月經』 法어 오나문 月經이 來지 法어 오나문 月經이 아니호미 <月經 7:47>
『龍歌』 西에 오나시 東郭 보라속불나 <龍歌 38장>

(6)과 같이 중세국어에서는 동사 『오-』와 결합할 때 『나』의 형태가 一般的으로 쓰였는데, 10) 이처럼 『나』가 쓰이지 않고 『거』로 일반화되는 시기는 대체로 近代國語以後이다.

- (7) 『門前有客호미 送迎待接이와 호미 손이 오시문 나시 마시 來賓이 來집호심
속 호문나 <隣語 6:17>

『火筒』에서 오시문 火筒을 불이 來火를 當호미 來를 불래나니이다.

<伍倫奎 6:18 1>

- (8) 집사들들로 더브러 시로 吊問호미 손이 오시문 拜問기문 拜問 7:12 호라

<家禮 7: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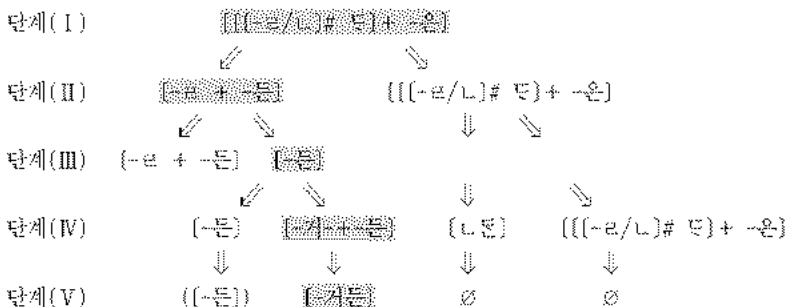
(7)은 근대국어 시기에 『거저』가 동사 『오-』와 결합할 때 變異形인 『나』가 쓰이지 않고 『거저』가 쓰였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8)은 근대국어 시기에 또 역시히 『오나』의 형태가 存續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인데, 『오나』의 예는 근대국어 초기 자료인 『家禮諺解』에서 18회, 『老乞大諺解』에서 1회 발견된다. 한편, 『오나』 > 『오거』의 變化와 平行하게 『하이』 > 『하거』의 變化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선어말어미 『거-』가 『하-』와 결합하던 『나-』로 交替되어 『하이』가 쓰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대국어 시기에 오히려 대부분 『하거』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인다.

10) 중세국어 시기에 『오거』의 형태가 發見된다. 『佛 뒤우물 개음이 호미나 손이 오거문 엇게 호라호 <佛心解 25:18>』와 같은 예인데, 『오거』의 예는 중세국어에서 매우 드물며 『杜德諺解』에서 2회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거』가 變異形으로 쓰이지 기는 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근대국어 시기에 발생한 ‘오나든’>‘오거든’, ‘하야든’>‘하거든’의 변화는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거든’이 완전한 統合形으로 再構造化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중세국어 시기의 ‘-거든’은 분석 가능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추가로 지적될 수 있는 사실은 접속어미 ‘-거든’의 分布變化를 통해서도 ‘-거든’이 통합형어미로 굳어지는 시기가 근대국어에 와서의 일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거든’은 현대국어와 비교해 볼 때, 특히 後行節의 文體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현대국어에서 ‘-거든’은 後行節의 文體法으로 命令法과 請誘法만 가능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으며 모든 문제법과 통합 가능하다.¹¹⁾ 그런데 ‘-거든’이 후행절 문제법에 제약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근대국어인데, 이러한 分布의 制約은 ‘-거든’이 완전한 統合形語尾로 再構造化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¹²⁾

이상의 논의를 통해 ‘-거든’의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포로 정리해 볼 수 있다.

(9) 接續語尾 ‘-거든’의 史的 形成過程



11) 현대국어 ‘-거든’의 후행절 문제법 제약과 관련해서는 서태룡(1979), 전해영(1983), 윤평현(1989) 등 다수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중세국어 ‘-거든’의 분포에 대해서는 장윤희(1991), 황재건(1992)을 참조할 수 있고, ‘-거든’의 통시적인 분포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拙稿(1998)를 참조할 수 있다.

12) 서태룡(1988:26-45)에서는 統辭論의인 複合構成이 再構造化된 統合形 또는 統合形語尾로 인식되는 기준으로 形態素 境界나 單語 境界의 變化, 統合的 分布의 變化, 그 構成要素인 意味 單位의 變化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접속어미 ‘-거든’은 통합적 분포의 변화와 함께 의미 기능의 변화도 17세기 이후에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나므로 近代國語 時期에 ‘-거든’의 結合이 完結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단계(1)은 依存名詞 ‘나’가 본래의 구성을 유지하며 ‘나’ 名詞句 補文 構成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나/나’는 구성이 名詞句 補文 構成의 형식에만 照應하여 지극히 자료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계(1)은 鄉歌 表記가 나타나기 이전 시기의 ‘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단계(II)는 초기의 [(나/나) + 나] + -은) 구성의 기능이 分化되어 일부는 그 結合方의 강화로 語尾構造體로 發展하고, 일부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며 名詞句 補文 構成을 形成하는 단계이다. 名詞句 補文 構成의 ‘나’문과 語尾構造體 ‘나’문의 共存은 著作구절 자료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단계(II)는 대략 12, 13세기 정도로 추정에 볼 수 있다. 단계(III)은 ‘나’문이 이미 구조적 상태에서 통합형이로 변화하여 단계이며, 이때의 주요한 변화는 ‘나’의 脫落이다.¹³⁾ 이 단계는 이미 구조적 ‘나’문과 ‘나’가 탈락된 상태의 ‘나’가 共存하는데, 자료상에서 확인되는 모습만을 근거로 할 때 이 두 형태의 공존 기간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著作구절 자료의 향가 자료에서 ‘나’문과 ‘나’가 공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著作구절 자료에서는 대부분 ‘나’문으로 나타나고, 『舊譯仁王經』이나 『金光明經』의 ‘佛의 1’ + 華嚴經의 ‘猶入 1’과 같은 예에서 ‘나’ 단락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향가의 경우 『三國遺事』 鄉歌에서 ‘나’문의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고, 『均如傳』 鄉歌에서는 ‘나’ 단락의 표기와 ‘나’문이 거의 동일한 쓰임을 보이고 있다. 鄉歌에서 ‘나’가 쓰인 예를 제시하던 다음과 같다.

- 13) 여기서 ‘나’ 탈락의 원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李勇(1998:42)에서는 金永旭(1996)에서 제시된 바 있는 抒情的의 계통을 도입하여 ‘나’의 脫落을 설명하고 있다. 즉, ‘나’문의 文法化가 진행되면서 起點的인 구성에 대한 언급의 의식이 없어지게 되고, ‘나’은 문법 기능은 없고 형태만 존재하는 過渡期的인 상태로 사라지게 되 결국은 소멸하는 消滅態라는 것이다. 본고는 ‘나’가 기능에 약화되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抒情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우회한다. 대신 ‘나’의 탈락에 音韻論的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세 국어에서 ‘나’의 문제라 〈松嶽集解〉22:16)와 같이 商音 아래에서 ‘나’가 脫落하는 현상을 고려한 때 ‘나’문에서 ‘나’가 탈락한 것도 이와 관련된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나’문과 ‘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은’과 ‘오’의 변화에서도 商音 아래 ‘나’ 탈락 현상을 볼 수 있다. 분명시이며 ‘나’가 결합되어 형성된 ‘나’문, ‘나’문 중에서는 ‘나’가 탈락하지 않는데 ‘나’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에서만 ‘나’가 탈락하는 것은 이러한 音韻論的인 원인이 “과했음”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대국어 단계에서도 이러한 음운 규칙이 있었는지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10) 所得不啻得伊羅漢也
 夜粉折比可散手理音如《散花歌》
- (11) 上落句 伊羅漢可等
 蟻蟻吃心音至万又去《隨喜功德歌》
- 上落句 菩提心音水清等17)
 佛影不冬漸爲賜下品《請佛住世歌》

이렇게 볼 때 단계(III)은 13세기 중반까지 정도로 추정할 볼 수 있다. 14세기 초 단은 시작과 끝 자료와 향가에서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진 것 같다. 단계(IV)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단은이 消失되고 단은만 接續語尾로 機能하는 단계이다. 이때 단은은 단거니와 활발히 결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때의 단거니는 그 結合이 아직 完成되지 않은 語尾構造體라 할 수 있다¹⁴⁾.

- 14) 김완진(1980)에서는 이 형태에 대해 ‘꽃그리샤원’이라 읽고 이에 따라 ‘鵲’은 ‘조’음을 ‘조’로 보지만, ‘지’음과 ‘순’은 환경에서까지 그것을 표시시켜서 ‘지’라 읽어야 한다(徐在亮의 경우)이라고 할 것은 타당하고 판정하고 있다. 中興의 語法의 ‘아(이)원’에서 이산대 ‘원’이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니 ‘야’를 補入하여 ‘샤원’이라 읽는다 해서 ‘鵲-샤’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¹⁵⁾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꽃그리샤원’은 ‘꽃그리 | 시 | 아 | 원’으로 분석되는데 ‘아’가 ‘기’의 異形體라고 하더라도 ‘시’와 ‘아’의 타연 순서가 맞지 않다. 전이말어파의 타연 순서에서 ‘기’는 중세국어까지도 ‘시’에 선행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적으로도 ‘기’와 ‘원’이 타연 순서의 명동을 일으키면서까지 결합력이 높은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꽃그리샤원(14)’으로 읽는다.
- 15) 김완진(1980)에서는 ‘鵲’을 ‘원기원’이라 읽고 있다. 그렇지만 ‘원기원’은 ‘원 · 기 · 원’으로 형태 분석될 수 있는데, 전이말어파로 보이는 ‘아’의 존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鵲’의 표기는 용언어준어 직접 ‘원’이 결합된 것이지 전이말어파의 ‘아’를 첨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기’으로 읽으며 ‘원’ 단독의 표기로 본다.
- 16) 이러한 추정은 鵲歌에 반영된 언어를 어느 시대의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 있어 약간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향가를 신라시대의 언어가 반영된 자료로 본다면 여기에 반영된 언어는 적어도 근절보다 이른 시기의 것이어야 하겠고 오히려 향가는 식목근절 표기보다 후대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音韻, 形態, 結構의 三 側面의 綜合의으로 檢討되어 鵲歌 資料의 言語的 時期를 推定해야 하였지만 接續語尾의 쓰임만을 고려할 때 향가는 식목근절보다 후대의 언어 지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의 '-거든'은 '-거-'와 완벽히 결합하진 하지만 '-거-'이외의 先語末語尾와도 결합하고 또 動詞語幹에 직접 統合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14세기와 15세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後期 中世國語 時期에는 先語末語尾 '-거-'나 '-어-'를 항상 앞세우고 動詞語幹에 직접 통합되는 경우가 없다. 단제(V)는 '-거든'이 완전한 통합형이므로 굳이 시기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대략 17세기 이후로 推定된다. 이 시기에는 의외로 언급한 바 있듯이 '-거든'의 分布와 意味機能에 變化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단제(V)에서 '-든'의 存在 與否가 문제가 되는데, 이 '-든'은 현대국어의 '-든 -든' 구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러한 구성이 발견되지 않고 근대국어 후반, 현대국어 초기에 와서야 조로상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이 시기의 '-든'은 괄호로 표시하였다.

2. '-거늘'

'-거늘'이 動名詞語尾 '-고'와 對格助詞 '-을'의 결합으로 형성된 '-닐'에 '-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삼축어비록¹⁷⁾ 대역은 대부분 一致된 見解를 보인다.¹⁸⁾ 이 시기의 鄉歌나 吏讀, 釋讀口訣 資料에서 '-닐'이 단독으로 삼축어비로 쓰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2) 18) 一、法界因得丘物丘物吃

爲乙丑置同生同死(他頭衆生歌 5 6)

【法界 마로 우물스 구물스 할아는 나로 리生同死】

二、條北良乙何如爲遊古(處客歌 8)

【아아늘 엇나호이코】

(13) 19) 一、衆生ニ 形相ト 各ホ 不ホ 同トシ 行業) 音聲ノヤ 亦ホ 量リ 無シト
是ニ如ホシト 一切ノ 音ヒ 能ホ 現ホトベシト(華嚴 15:1 2) 【중생

17) '-거늘'의 '-닐'을 삼축어비로 본 기존의 논의에 대해서는 송勇(1998:48~9)을 참조할 수 있다.

18) 여기에 제시된 향가 자료와 해독은 송完鎭(1980)을 참조한 것이다. 그런데, 송完鎭(1980:199)에서는 爲乙을 '하야늘'로 대응시키고 있는데, 근대국어에서 '-닐'이 단독으로 삼축어비로 쓰이는 다른 예들을 고려한 때 爲乙은 '하야늘'보다는 '하닐'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하다. 崔植熙(1996), 李勇(2000)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19)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李勇(2000), 李金永(2000)을 참조한 것이다.

의 형상들이 각각 따로 또 행동이라 유심이라 하는 것과 한쌍임자들 이
와 같은 일체성 모두 상히 나타내는 것은】

㉑. 〔賢〕十聖ノ心ヲ果報ニ住ルコトヲ 唯ハ 佛ノ心ノ一人ニシテ
淨土ニシテ 居ルコトヲ云フ(舊仁 11:6) 【〔賢과〕十聖이라 하는 이는 果
報에 머무르지 않는 오직 佛이신 한 분만이 淨土에 居하시니라】

㉒. 一切外人ノ來リシハ 相ノ 諸難ノ大ニシテ 淨(能 解釋ニシ) 其ニ 降伏
令ルコトヲ是 波羅蜜義ニ云(金光 5:20-21) 【일체 외인이 와서 서로
원한하지는 않 제식하여】 또한 항복시키는 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㉓. 故ノ正法ニ 宜惡ノ心ニシテ 其 聽法者ノ 即チ 此 義ニ(以テ) 而… 正法
ニ 聽ルコトヲ云(維伽 5:21-22) 【그러므로 정법을 피차 말하시를 이 법
을 주는 이는 곧 이런 뜻으로써 정법을 주신니라】

㉔. 一切衆生ノ 誓ハ來シテ 報ニ住ルコトヲ 金剛原ニシテ 證ルコトヲ云(舊仁
淨土 5: 居ルコトヲ云フ) (舊仁 11:7) 【일체 중생을 자심사 報에 머
무시를 금剛 原에 오로심이라야 淨土에 居하신 수 있다】

(12-1)은 雜歌에서 ‘-닐이 接續語尾로 쓰인 예를 제지한 것이며, (12-2)은 ‘-닐과
先語末語尾 ‘-아(-거-)의 이형태)가 통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예이다. (13)은
식위구결 자료에 나타나고 ‘-닐인데, (13-1)처럼 動詞語幹에 직접 통합되기도
하고 (13-1-a)과 같이 先語末語尾 ‘-지-, ‘-거-, ‘-누-, ‘-고- 등과 통합되어 나
타나기도 한다. 이들 자료에서도 ‘-닐이 ‘-더-나 ‘-지- 등과 통합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13세기 말의 음운구결 자료와 14세기의 이들 자료에서는 ‘-닐은 單獨의
表記보다 ‘-거-와 통합한 형태가 더 優勢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의 結合이 활발히 進行되던 時期와 大略 一致하지만, ‘-거-와 ‘-닐의 結合은 ‘-거-
는보다 時期적으로 좀더 앞선 것으로 보인다. ‘-거-와 ‘-닐의 結合은 ‘-고-에서
‘-로-이 탈락하고 ‘-닐이 형성된 후에야 가능한 것인 반면 ‘-거-들은 ‘-닐에 ‘-거-가
직접 結合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더 앞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 1. 領解結 入圓之要也(ソレハ) 一切諸法ノ 唯心所現(ソレヲ) 而於中ニ 取著(ソ
ヲ) 妄或根結(ソレハ) 是自(心)ニ 取(이하 나장)

〔南懷鉉本 楞嚴經 5권 2: 15〕

2. 領解結 入圓之要也(ソレハ) 一切諸法ノ 唯心所現(ソレヲ) 而於中ニ 取著(ソ
ヲ) 妄或根結(ソレハ) 是自(心)ニ 取(自心)ニ 非幻(非幻法也)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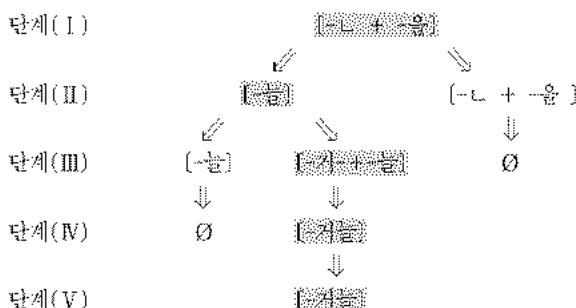
〔南懷鉉本 楞嚴經 5권 4: 12-3〕

3. 以요를 들어 위에 드를 要를 領하시니라 一切의 모든 법이 오직 마음의

우 드물게 나타나는 데 비해 '오거늘'이 쓰인 예는 흔히 확인된다. '-나'와 '-시'가 동시에 통합될 때는 (17ㄷ)과 같이 '-나'와 '-늘'이 分離되기도 하지만 (17ㄷ)과 같이 '-거늘'이 한 單位로 行動하기도 한다.

以上으로 접속어미 '-거늘'의 형성 과정에 대해 大略으로 살펴보았다. 접속어미 '-늘'은 대략 13세기까지 單獨으로 接續語尾의 機能을 遂行하였으며 13세기 말, 14세기 초부터 '-거-'와 활발히 結合하기 始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여전히 '-거-'외의 다른 先語末語尾와도 結合 가능했던 것으로 確認된다. 15세기 以後의 '-거늘'의 文法的 地位에 대해서는 좀더 細密한 觀察이 要求되는데, '-더늘'이 文證되지 않고 또 '오나늘, 오나시늘'에 비해 '오거늘, 오시거늘'의 형태도 꽤 활발히 쓰이는 것으로 보아 '-거든'에 비해 文法化가 상당히 進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늘'은 意味의으로도 매우 無標의이라 할 수 있는데,²⁰⁾ 이러한 意味의인 特徵 때문인지 그 結合에 별다른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즉 結合 가능한 동사나 주어, 통합 가능한 후행절의 문체법 등에 거의 制限을 받지 않고 쓰였다. 그리고 분포상에 별다른 變化를 겪지 않고 近代국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늘'의 結合이 完結되는 시점을 單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대체로 中世國語 後期에 그 結合이 거의 完結된 것으로 推定된다.

(18) 接續語尾 '-거늘'의 史的 形成 過程



'-거든'의 형성과 平行하게 '-거늘'의 형성 과정을 圖式化해 본 것이다. 단계 (I)은 '-늘'이 형성되기 이전의 動名詞語尾와 對格助詞의 結合을 나타낸 것으로

20) '-거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제', '배경', '상황 제시' 등으로 기술된다.

사의구결 자료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 단계(II)는 한편으로는 ‘-니 + -음’의 結合이 文法化하여 接續語尾 ‘-닐이’ 形成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起源의인 動名詞語尾와 資格助詞의 結合이 本來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시기로 大略 12, 13세기에 해당한다. 단계(III)은 ‘-니 + -음’의 動名詞 構成은 消滅하고 ‘-닐이’ 單獨으로 接속어어로 기능하는 시기로 13세기 후반, 14세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先語末語尾 ‘-거-’와의 統合이 활발히 進行된다. 단계(IV)는 중세국어에서 ‘-거닐’의 結合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나타낸 것이다. 단계(V)는 근대국어 시기에 해당한다.

3. ‘-거닐’

‘-거닐’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接속어어 ‘-니’의 形成에 대해 檢證해 볼 필요가 있다. 외에서 살펴본 ‘-닐이’나 ‘-든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接續語尾로 쓰였음에 반해 ‘-니’는 이보다 後代에 發達한 것으로 보이며, 또 현대국어에서 ‘-닐과’ ‘-닐은’ ‘-거-’의 統合된 狀態에서 그 存在를 確認할 수 있음에 반해 ‘-니’는 단독으로 여전히 接속어어로 쓰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로 ‘-니’가 文證으로 자료로 향가의 ‘遇賊歌’이다.

(19) 此兵勢吃涉過乎

好日涉也爲存尼(遇賊歌 7-8)

【이 자본가서와 말은 중실 法이라 도는 오다니 / 兵器를 마다 하고 중실 法을 중하고 있네】 21)

(19)는 鄉歌, 更讀, 釋讀口訣 資料를 통틀어서 ‘-니’의 存在를 보여 주는 唯一 例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니’의 빈번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사적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예가 注目된다.

(20) 〽 佛! 郎ち 時ヨカヲ²¹⁾ スシ 知コサ 衆生ノ 根シ 得コサ²²⁾ 郎ち 定シ 從ニ 起コサ²³⁾ 《舊仁 3:13》【부처는 곧 깨달 것을 하지만 중생의 根을 얻으시니 곧 定을 좇아 일어나시어】

21) 金完鏡(1980)의 라본과 한역역을 제시한 것이다. 金完鏡(1980:153)에서는 ‘-니’와 ‘-니를’ 각각 ‘-니’와 ‘-니의’ 轉寫로 보았다.

「거니의 對格獨尾」음을 고려할 때 짐작하여 「너니」가 동명사어미 「너」와 어떤 요소가 結合하여 形成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가 動名詞語尾 「너」와 繫辭의 결합일 수도 있으나 繫辭 뒤에는 항상 接續語尾나 終結語尾가 뒤따라야 함을 고려할 때 主格助詞 「어」의 가용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너」와 「너」가 각각 補助詞 「너」와 對格助詞 「을」의 結合形임을 고려할 때 조사가 결합형일 가용성이 더 큰 것으로 추측된다.

(23)은 '오지거론'과 '보' 사이에 目的語가省略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거론'이 걸출된 적이 內包文을 이루면서 '보'의 目的語로 機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예이다. 중세국어에서 이러한 경우의 母文 敘述語는 대부분 '보다'나 '보다'와 같은 動詞의 體止形이 나타나고 있다(李金永 2000:204). 이러한 예를 통해 '거론'

의 ‘-네’가 動名詞語尾와 對格助詞 ‘-이’의 결합임을 推定하게 하는 根據가 되기도 했다. 이와 平行하게 (24)를 보면, (24)의 ‘-네’의 경우인데, 1-음의 ‘-네’는 모두 接續語尾로도 볼 수 있지만 動名詞語尾 또는 起原形語尾 ‘-네’와 依存名詞 ‘이’ 그리고 主格助詞 ‘-이’의 결합인 ‘~한 것이’와 같이 해석될 수도 있다.

I. 法프이 法을 만하심은 修理가 있어 어지럽지 않으니 처음 一乘類敎를 이르시어 實을 그세우시니 것이 곧 華嚴이시고, 다음으로, 二乘漸敎를 이르시어 機에 그땅에 놓신 것이 곧 阿耨라 方便과 般若이시고 후에 一乘圓敎를 이르시어 實을 그나타내시니 것이 곧 華嚴이시니

II. 法프이 法을 만하심은 修理가 있어 어지럽지 않으니 처음 一乘類敎를 이르시어 實을 그세우시니 (이것이) 곧 華嚴이시고, 다음으로, 二乘漸敎를 이르시어 機에 그땅에 놓시니 (이것이) 곧 阿耨라 方便과 般若이시고 후에 一乘圓敎를 이르시어 實을 그나타내시니 (이것이) 곧 華嚴이시니

즉, I와 같이 의존명사 구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II와 같이 ‘-네’를 접속어(接續語)로 보고 주어 ‘이것이’ 정도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즉 (24)는 접속어인 ‘-네’로도, ‘~한 것이’와 같은 의존명사 구성으로도 해석 가능하네. 중세국어에 나타난 ‘-네’와 이러한 예는 바로 접속어인 ‘-네’의 起源的인 構成은 만해-속-것으로 생략된다. 즉 접속어인 ‘-네’는 動名詞語尾 ‘-네’와 依存名詞 ‘이’, 主格助詞 ‘-이’의 결합, 또는 動名詞語尾 ‘-네’와 主格助詞 ‘-이’의 결합이 재구조화된 통합형이므로 주장되는 것이다.²⁵⁾

한편, 석보구결 자료외에 밀려 유물구결 자료에서도 ‘-네’가 매우 활발히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 -느-, -더-, -소-, -오-’ 등 다양한 접어(接尾)와 결합하며 특히 ‘-느-’와 결합한 예도 볼 수 있다. ‘-네’가 ‘-느-’와 결합한 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一六結의 同體로 結不解時로 則結解時云在 同結로 亦이 同
 <南權藏本 楞嚴經 5권 6 (9-10)>

25) 석보구결 자료에서 動名詞語尾 ‘-네’와 對格助詞, 對格助詞, 對格助詞의 결합은 확인되는데 對格助詞와의 결합은 2곳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 바(南畝畝 1996), 동명사어미 ‘-네’와 의존명사 ‘이’, 주격조사 ‘이’의 결합인 가능성이다 볼 것으로 보인다.

- (1) 이處 時節의 體를 가지나 時節의 時字는 가치 아니나 時節을 그處 時節에 엮어 用한 바 아니었나(楊殿經 5:261)
- (2) 阿難并令 問汝々々 此阿波羅生已 大結의 現前호호호 同時解解호호 得 同除호호(南樞熙本 楊殿經 5권 6:118-9)
- (3) 阿難아 네 아세 나더라 불노라 이 阿波羅호호 이 이處 時節의 現前호호 用 阿波羅를 보지나 用한 바 더로불 得호호 得호호라(楊殿經 5:261)
- (4) 爾時世尊 普告衆中 諸大菩薩 及諸滅盡大阿羅漢々々 汝等菩薩 及阿羅漢 生我法中호호 得度無學호호호호 (并令 問汝々々々) (南樞熙本 楊殿經 5권 5:113-14)
- (5) 爾時世尊 普告衆中 諸大菩薩 及諸滅盡大阿羅漢々々 汝等菩薩 及阿羅漢호호 生我法中호호 得度無學호호호호 (并令 問汝々々々) (南樞熙本 楊殿經 5권 7:110-11)
- (6) 그處 世尊이 衆中에 모든 大菩薩와 모든 漏盡을 大阿羅漢이라 나히 나 보사나 나히 菩薩와 阿羅漢이 내 法中에 다 無學인호호 得度했호호 내 아세 나더라 불노라(楊殿經 5:311)

(25)는 13세기 말의 유목구결 자료에서 ‘-네’가 ‘-거니’ 혹은 ‘-거지니’와 統合한 예를 제시한 것이다. 26) 중세국어에서 ‘-거니’가 쓰인 구문의 후행절이 대부분 修辭疑問文인 데 말해 이 시기의 ‘-거니’가 그러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25)기의 경우만 후행절이 修辭疑問文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중세국어의 ‘-네’와 동일한 용법을 보이며 또 15세기 諺解文에서도 ‘-네’로 諺解되어 있다. 즉 이 시기의 ‘-거니’는 삼축이 ‘-네’와 ‘-거니’의 단순 결합형이라 할 수 있다.

中世國語의 ‘-거니’와 ‘-네’외의 그 用法에 차이가 있다. 이 시기의 ‘-거니’는 修辭疑問文을 同伴하는 主술어어로 쓰이거나 ‘-거니 ~거니’의 짧은 중보된 형태로 쓰여 內包文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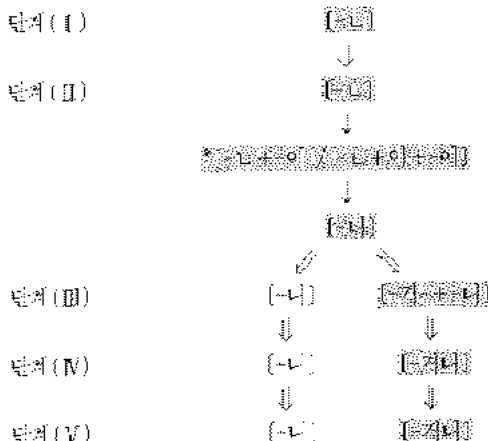
- (26) 나 더 나라하 惡道호 일호호 일호호 호호호 虎實호 세 이호호호
(月釋 7:67)
- (27) 본에 龍을 보나 골호호 고더 호 일호호 일호호호(楊殿經10:9)
- (28) 일호호 골호호 골호호 (杜謔 初 24:58)
- (29) 一切 天者...人 非人 等이 다 호호 심작습기나 비조습기나 호호 나리

26) 여기서 ‘거니’의 ‘지’는 주체동명의 ‘지’가 아니다. 아예의 ‘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외하지 않는다. ‘지’와 관계없이 이 경우로 쓰여왔던 ‘거기’가 동일한 경우임을 확신한다.

(26)은 중세국어 '-거니'의 典型的인 用法을 보인 것으로 이 시기에 확인되는 '-거니'는 대부분 이러한 형식으로 쓰인다. 이에 비해 (26나)은 조금 例外的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훈독구결 자료에서 보았던 '-거니'의 쓰임과 類似하다. 즉 '-니'와 '-거-'의 단순 결합형이라 할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이러한 예는 『楞嚴經 諺解』에서 몇 예가 確認된 뿐이다. (27)은 '~거니 ~거니' 體文으로 중세국어에 시는 드물게 발견되고 근대국어로 갈수록 많은 예를 확인할 수 있다.

以上の 論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거니'의 형성 과정을 圖式化할 수 있다.

(28) 接續語尾 '-거니'의 史的 形成 過程



위의 표는 접속어미 '-거든, -거늘'의 형성 과정에 맞춰 '-거니'의 형성 과정을 도식화해 본 것이다. 단계(I)과 (II)는 動名詞語尾 '-니'가 接續語尾로 機能하던 시기를 나타낸다. 動名詞語尾 '-니'가 接續語尾의 기능까지 겸당하는 현상은 주로 석독구결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단계(II)까지는 대략 12, 13세기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動名詞語尾 '-니'에 主格助詞 또는 依存名詞과 主格助詞가 결합하여 '-니'가 형성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文證되지 않으므로 짐작으로 표시하였다. 단계(III)은 접속어미 '-니'가 다양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며 활발히 쓰이는 시기로 普讀古訣 資料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략 13세기말부터 14세기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 시기에 '-거-'와의 결합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그러나

이 시기의 『거녀』는 중세국어의 『거녀』와 用法이 다르나, 작목어의 『녀』의 本來 機能에 先語末語尾 『거-』가 결합하여 柄의 意味 또는 鼓法的 意味만을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 시기의 『거녀』는 『거녀』, 『거녀』, 『거녀』 등이지 先語末語尾 『거-』, 『거-』, 『거-』가 각각 分析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녀』로 分析할 수 있다. 만가(VI)은 『녀』와 『거녀』가 결합하여 하나의 統合形態尾가 형성된 것으로 중세국어 시기의 『거녀』를 나타낸 것이다. 『거녀』나 『거녀』와 달리 『거녀』는 中世國語 段階에서 이미 그 결합이 완성된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中世國語 共時態에서 『녀』와 『거녀』의 用法이 완전히 구분되는 사실에 根據한 것이다.²⁷⁾ 中世國語에서 『거녀』는 後代語에 修辭疑問文法을 주하는데, 이러한 分布의 變化로 『거녀』의 형성은 관찰되면서 언급한 바 있듯이 『거녀』가 統合形態尾로 굳어지면서 나타낸 변화로 해석되는 것이다. 만가(VI)는 近代國語 時期에 해당한다.

III. 結 論

지금까지 『거-』 統合形 接續語尾 가운데 『거는』, 『거는』, 『거녀』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論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것으로 結論을 내린다.

먼저, 『거는』의 形成이 있어 問題가 되었던 부분은 『거는』이 『거는』에서 『녀』가 脫落하면서 형성된 것인지, 아니던 『거는』에서 『녀』가 탈락한 후 『거-』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後者の 입장을 주렸는데, 그 根據은 『는』 單獨의 表記가 흔하지는 않지만 鄉歌와 釋讀口訣 資料에서 발견되며, 口訣의 音讀口訣 資料에서도 『는』이 『거-』와 先語末語尾의 結合한 예가 발견된다는 데 있다. 즉 『거는』에서 『녀』가 탈락하여 『거는』이 되었다고 보면 『는』이 單獨으로 接續語尾로 機能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거는』이 완전히 統合形이므로 완성모형은 시기를 근대국어로 보았는데, 이는 중세국어에서 『거는』과 系列關係를 이루는 『거녀』의 존재, 『오나』나 『하아』와 같이 『거-』의 異形態가 결합된 형태가 근대국어 시기에 오면 거의 대부분 『거는』으로 통일

27) 중세국어에서 『오나』, 『오나』의 예가 원거 제외되는데 반해 『오나』의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하아』와도 제외되는데 『하아』의 예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중세국어의 『거녀』는 『는』 등 밖의 『녀』와는 다르다고 보아서 다른 『거-』 동형형이었던 『녀』와 하아 등의 예가 보일 것이라 보았다.

되는 현상, 그리고 ‘-거든’의 綜合的 分布와 意味機能의 變化가 근대국어 시기, 즉 17세기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다음으로 ‘-거늘’의 형성에서, 이 글에서 다룬 부분은 既存에 이미 論議되고 어느 정도 見解의 一致를 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거늘’은 動名詞語尾 ‘-ㄴ’과 對格助詞 ‘-을’의 結合으로 ‘-늘’이 형성된 후 여기에 先語末語尾 ‘-거-’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그리고 ‘-거늘’은 ‘-거든’보다 좀더 일찍 統合形語尾로 完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거든’은 ‘-르든’에서 ‘르’이 탈락한 후 ‘-거-’와 결합한 것인 반면, ‘-거늘’은 ‘-거-’와 ‘-늘-’이 곧바로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거니’의 형성에서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니’의 형성에 관한 것이다. 접속어미 ‘-니’는 ‘-늘’이나 ‘-든’보다 훨씬 후대에 자료상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거니’의 형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니’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니’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현상은 動名詞語尾 ‘-ㄴ’이 釋讀口訣 자료에서 접속어미 ‘-니’와 거의 동일한 쓰임을 보인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현상을 통해 ‘-니’의 형성에 동명사어미 ‘-ㄴ’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니’를 동명사어미 ‘-ㄴ’과 주격조사 ‘-이’, 또는 동명사어미 ‘-ㄴ’과 의존명사 ‘이’,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거든, -거늘, -거니’의 형성 과정을 大略的으로 推定해 보았다. 앞으로 좀더 보충해야 할 것은 중세국어에서 ‘-거늘’과 ‘-거니’의 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거든, -거늘, -거니’를 제외한 다른 ‘-거-’ 통합형 접속어미들의 형성, 그리고 이러한 ‘-거-’ 통합형 접속어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 參考文獻 ◇

- 高永根(1978), 形態素의 分析限界, 언어학 3.
 고영근(1997), “개정판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집문당.
 구원정(1989), 조건의 원형태와 ‘-거든’, 재효 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김문웅(1979), 불완전명사의 어미화 - “든”, “이”, “스”를 중심으로-, 國語教育論志.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용석(1981), 연결어미 ‘-ㄴ’에 대하여, 배달말 6.

- 남정란(1997), 고려본 《송임경》 입결파 ‘-거’형 종결법 연구, 대구효정가톨릭대
직사학위논문.
- 南美貞(1998), 接續語尾 ‘-거’의 通時的 研究, 韓國語研究 35, 시강대 직사학
위논문.
- 南豐紱(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 語尾 ‘-’/(으)니에 대한 考察, 國
語學 28.
- 리의노(1990), “우리를 이운씨권의 통시적 연구”, 이문간.
- 박성종(1996), 朝鮮初期 吏讀資料와 그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박진호(1998), 고대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 徐泰龍(1979), 國語 接續文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0.
- _____(1988), “國語 活用語尾의 形態의 意味”, 國語學叢書 13, 뮐출학사.
- 유영현(1989), “국어의 집속어미 연구”, 한신문화사.
- 이문영(2000), 선이말어미 ‘-거/아-’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 이기동(1980), 연결사 ‘국대’의 화용문식 기능, 언어 5-1.
- 李承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國語學叢書 17, 태학사.
- _____(1995), 動名詞 語尾의 通時的 變化, 國語史와 借字 表記, 태학사.
- 李崇寧(1981), “저성 중보한 中世國語文法”, 을유문화사.
- 이 용(1997), ‘-乙’에 대하여, 口訣研究 2.
- _____(1998), 연결어미 ‘-거’의 문법사적 고찰, 口訣研究 4.
- _____(2000), 연결어미의 형상에 관한 연구, 시립대 박사학위논문.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장우희(1991), 중세국어의 조선 집속어미에 대한 연구, 國語研究 104.
- 진희영(1983), 가장 조선문 연구, 梨花語文論集 6.
- 정호환(1980), 불완전명사 ‘-’와 ‘-’의 고찰, 새국어교육 31.
- 최남희(1996), “고대국어형태론”, 박이정.
- 한동환(1996), “국어의 지지 연구”, 국어학총서, 태학사.
- 韓梧花(1994), 新林草本 楊嚴經, 口訣의 研究, 상점여녀 직사학위논문.
- 황선업(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國語研究 135.
- 黃再建(1992), 中世國語 假定・條件 接續語尾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
位論文.
- 이 용(1975), “우리옛말론”, 샘문화사.